

광주 수어통역서비스 갈등 해결...운영 방안 합의

수어통역서비스 운영기관, 시립장애복지관서 맡기로

다음달 중 서비스 제공...농아인 쉼터, 내년 예산에 반영



광주시와 시의회, 농아인협회, 수어통역사 대표, 장애인복지관협회장, 장애인종합지원센터장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이 지난 1월 29일 수어통역서비스 운영방안과 수어통역사 공개 채용 등을 위한 2차 회의를 열고 있다.

센터 폐쇄 결의 등 극단적 갈등을 빚은 광주시 수어통역 서비스가 운영방안에 합의하며 정상화 국면에 들어섰다. 지난 1월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시의회, 농아인협회,

수어통역사 대표, 장애인복지관협회장, 장애인종합지원센터장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는 최근 2차 회의를 열고 수어통역서비스 운영방안과 수어통역사 공개 채용 등에 합의했다.

수어통역서비스 운영 기관은 시립장애복지관에서 맡고 각 지역 장애인복지관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효율적인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수어통역사 채용은 시립장애인복지관 인력채용 기준에 따라 공개 채용하고, 수어통역센터 폐쇄 등 행정절차는 수어통역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규정, 채용 등)을 구축한 후 진행하도록 했다.

농아인협회에서 수년간 요구해온 농아인 쉼터는 내년 예산에 시와 시의회가 최대한 반영해 제1권역(동·서·남구)과 제2권역(북·광산구)에 우선 설치하고 점진적으로 각 구에 설치하도록 했다.

시와 시립장애복지관은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신속하게 마치고 3월 중 농아인들에

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수어통역서비스 운영을 둘러싼 갈등은 2014년 7월 수어통역센터를 1개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불거져 지난해 10월 15일에는 수어통역센터 폐쇄 의결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다.

폐쇄 의결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자 회의와 면담을 20여 차례 실시했으나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지난달 12일 TF를 구성해 논의하고 결정사항에 따르기로 합의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TF팀장을 맡은 신수정 시의회 환경복지위원은 “이번 일로 농아인들의 아픔과 바람을 더욱 잘 이해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속에서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며 “농아인 쉼터 설치와 수어교육원, 청각·언어장애인 복지관 건립 등 1만여 농아인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한국조폐공사는 지난 1월31일 화폐박물관에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디자인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발달장애인들은 캔버스, 에코백을 활용해 '나만의 아트웍(ArtWork) 만들기'를 체험했다.

발달장애인 자립·고용 지원 특별교육 프로그램

한국조폐공사가 발달장애인 자립과 고용 지원에 나섰다.

조폐공사는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난 1월31일 대전 본사내 화폐박물관에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디자인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체험교육은 서번트 증후군 아티스트와 함께 추진중인 '천사의 재능 메달' 사업을 알리고, 재능 있는 지역 장애인 아티스트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천사의 재능 메달' 사업을 함께하고 있는 키뮤스튜디오는 대전 지역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캔버스, 에코백을 활용한 '나만의 아트웍(ArtWork)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키뮤스튜디오(대표 남장원)는 '천사의 재능 메달'을 디자인한 발달장애인 디자이너 소속 디자인 회사다.

'천사의 재능 메달'은 서번트 증후군 디자이너의 독특한 작품을 조폐공사가 제품화한 것이다. 앞면에는 십이지 피별 동물을, 뒷면에는 '우리는 언제나(장애인)과 함께'라는 'We always be with You' 글자를 새겼다.

뉴스1

무안군, 한발 더 다가서는 현장 복지행정 개시

'찾아가는 이동 빨래방'

무안군은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과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에 세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일부터 '찾아가는 이동 빨래방'을 운영한다.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 빨래방은 1.2톤 차량에 세탁기 4대와 발전기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가정, 통합사례관리가정 등 지역 내 소외계층 가정에 직

접 찾아가 세탁·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사업으로, 특히 거동이 불편해 세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은 공익형 자활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며 이동 빨래방 서비스가 필요한 소외계층 가정은 무안지역자활센터 또는 읍면 사무소를 통해 세탁·건조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이동 빨래방 사업을 통해 소외



된 이웃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연중 2,000여 가정에 찾아가는 이동 빨래방 운영을 목표로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안-이기성 기자

철도역사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추진

철도공단, 간담회 개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한국철도공사, 국립국어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지난 1월31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철도역사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각 기관들은 시각장애인의 철도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고, 만종역으로 이동해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합동 점검을 시행했다.

또한 공단은 신규 철도역사

설계·시공 시 개선이 필요한 편의시설을 적극 검토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운영 중인 역사에 대해서는 철도공사와 협의해 점자안내 표지 등의 시설을 조속히 개선할 계획이다.

김상균 이사장은 “앞으로도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국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1

정화조 청소

깨끗한 물, 자연과 함께 하는 기업

노령미화사

금성미화사

061)393-3200

061)394-3200

정화조는 1년에 1회 이상 환경법에 의해 청소해야 되며, 미 청소시엔 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